

THE PIANO

No.321 2008. 12 The Best Publication in Piano Music 피아노음악

LANG LANG

지구촌 곳곳에 센세이션을 몰고다니는 랑랑 내한 독주회

송년기획 · 2008년 베스트 공연 & 2009년 공연계 전망

프랑스 취재 · 현대음악 축제, 스트라스부르 무지카 페스티벌
토크토크 · 피아니스트 윤금희와 이지영 · 이예슬 이화여대 학생
음악유학정보 ·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지상공개레슨 ·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제6번'

특집 · 피아노음악 중심의 작곡가 집중탐구 피아졸라

삶과 죽음 | 피아졸라 음악의 특징 | 피아졸라, 그 이전과 이후 | 피아노 작품분석 | 연주에서 감상까지

Contents



The Best Publication in Piano Music
December 2008 / VOL 321

46

Life

- 26 커버스토리
지구촌 곳곳에 센세이션을 몰고다니는, 량랑
- 106 토크토크
피아니스트 윤금희와 이화여대 이지영·이예슬 학생
음악은 사랑, 음악은 감사



Stage

- 12 Ode to Music | 텔레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 꽃이 피다
- 40 Concert & Interview
송년음악회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서울시향의 러시아 명곡 시리즈 IV, 리시차
김명호 피아노 독주회 & 제자 음악회
김정원 2008 전국 투어 리사이틀
박홍우·신수정의 슈베르트 연가곡 전곡 연주
김승희·이혜영 두오 연주회
현재희 피아노 독주회
Opus 5 바흐 & 모차르트 프로젝트
김문정 피아노 독주회
김지현의 'Beethoven's Classical Prapose'
최소영 피아노 독주회
- 64 Preview
- 82 Special Stage
- 96 Interview
피아니스트 외르크 데무스
보스턴 음대 피아노과 학과장 보아즈 사론
- 101 제2회 베토벤 콩쿨
베토벤의 마음에 더 가까이…
- 102 방담 | 한세대 피아노 페다고지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나를 찾는 일!
- 104 Music & Young Pianist
따뜻한 평화, 허재원
- 148 STEINWAY NO.1 ROAD SHAW
꿈의 피아노 음악여행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보아즈 샤론

2009년 1월부터 보스턴 음대 피아노과 학과장으로 부임하는 보아즈 샤론이 지난 11월 내한해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다. 세종대(5일)와 연세대(7일), 선화예고(10일), 서울예고(11일)에서 진행된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교육자로서 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는 2009년 1월부터 보스턴 음대 피아노과 학과장으로 부임하는 보아즈 샤론(Boaz Sharon). 그는 현재 체코 프라하 국제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와 러시아 루자 피아노 페스티벌, 국제 피아노 세미나의 책임자로 있으며, 내년부터는 뱃글우드 Institute의 피아노 부문 디렉터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프랑스 음악 해석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는 그는 드뷔시·미요 등 다양한 프랑스 작품을 음반으로 발매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00년에 발매된 Koechlin 음반은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10대 클래식 명반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도 뉴욕·워싱턴·런던·뮌헨·프라하·러시아에서 연주 무대를 갖고 있으며,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쿨·루돌프 피르쿠즈니 국제 콩쿨·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콩쿨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작곡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항상 클래식 음악과 연주자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태어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문화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폴란드·헝가리의 많은 연주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했거든요.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죠.

쇼팽 음악의 권위자인 슈테판 아슈케나제(Stefan Askenase)와 슈나벨의 계보를 잇는 레너드 쇼어(Leonard Shure)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차르트와 쇼팽 스페셜리스트인 아슈케나제 선생님은 제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나이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은 제 음악의 밑거름이 됐어요. 하루 종일 선생님과 대화하고 함께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꿈같은 시간이었죠. 이후 스페인 하엔 콩쿨 우승을 계기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레너드 슈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슈나벨의 직계 제자인 레너드 슈어 선생님은 매우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키셨죠. 선생님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공부했었는데, 아주 고행이었어요(웃음).

2009년 1월부터 보스턴 음대 교수 부임과 동시에 탱글우드 Institute 피아노부문 디렉터로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스턴 음대 교수 부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레너드 슈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거든요. 보스턴은 뉴욕 다음으로 문화적인 도시입니다.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탱글우드 Institute에도 새로운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체코 프라하 국제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 · 러시아 루자 피아노 페스티벌 · 국제 피아노 세미나의 책임자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체코 프라하 국제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주자로는 문용희 교수가 참여한 적이 있지요. 러시아 루자 페스티벌은 2월에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페스티벌이죠(웃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가 작곡 활동을 하던 곳에서 열려,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1~2년 후에는 중국에서 국제적인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마스터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죽어가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아시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아시아 지역에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심양 음악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더군요. 중국에서 개최될 이 마스터 클래스는 1~2년 후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와 페스티벌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다양한 교수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12년 동안 프라하 마스터 클래스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전 이 학생들을 통해 각 나라의 음악 교육과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한국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슈테판 아슈케나제 선생님은 제 인생의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사' 또는 '훌륭한 연주자'라고 부르죠. 선생님의 집에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어요. 피아노가 보이기도 전에 말이죠. 음악은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삶의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처럼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제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아즈 샤론이 지난 11월 11일 서울예고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다. 이날 마스터 클래스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고, 정용환 · 김유진 · 오연택 · 안현정 · 김예은 · 양경준 총 6명의 학생이 참가해 연주를 선보였다.

보아즈 샤론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음악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그 선택은 학생에게 맡겼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조언해줄 뿐,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는 내내 직접 연주를 하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현정 학생(서울예고 2)은 선생님의 연주가 도움이 많이 됐다며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를 보여주셔서 음악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작곡가와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혼자 연습할 때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었구요."

학생들은 마스터 클래스가 끝난 후에도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보아즈 샤론은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 이날 마스터 클래스의 만족감을 표했다.

"마스터 클래스가 끝난 후에도 20여 명의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군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교육자로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글 · 권기호 기자 | 사진 · 윤윤수 기자

